

문화재청 공고 제2020-320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총 5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 11. 13.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5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선원제전집도서 목판 (禪源諸詮集都序 木板)	22판	대한불교조계종 쌍계사
2	원돈성불론·간화결이론 합각 목판 (圓頓成佛論·看話決疑論 合刻 木板)	11판	대한불교조계종 쌍계사
3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목판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木板)	335판	대한불교조계종 쌍계사
4	효의왕후 어필 및 함- 만석군전·곽자의전 (孝懿王后 御筆 및 函 - 萬石君傳·郭子儀傳)	서책 1책, 함 1점	국 유 (국립한글박물관)
5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 및 함 (固城 玉泉寺 靈山會 掛佛圖 및 函)	괘불도 1폭, 괘불함 1점	대한불교조계종 옥천사

나.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mailto: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보물 지정 예고】

□ 선원제전집도서 목판(禪源諸詮集都序 木板)

- 현재 지정현황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85호(1979.12.29.)
- 명 칭 : 선원제전집도서 목판(禪源諸詮集都序 木板)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쌍계사
- 소재지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길 59, 쌍계사
- 수 량 : 22판(完)
- 규 격 : 광곽 19.2×28.5cm
- 재 질 : 나무
- 조성연대 : 1603년(선조 36)
- 제작자 : [校定] 覺性 / [鍊板] 良機 / [刻手] 應俊, 惠寬, 勝熙, 淳玉, 玄鑑, 眞義, 眞正, 印和
- 사 유

하동 쌍계사 소장 ‘선원제전집도서 목판’은 경상도 지리산 신흥사(1579)나 전라도 순천 송광사(1608) 계통의 판본을 저본으로 복각(覆刻)된 목판이다. 1603년(선조 36) 겨울에 지리산 능인암(能仁庵)에서 복각되어 쌍계사로 옮겨진 이래 현재까지 22판이 완질로 전해지고 있다. 『선원제전집도서(禪源諸詮集都序)』는 당나라 규봉 종밀(圭峰 宗密, 780~841)이 자신의 찬술인 『선원제전집』 100여 권에서 요점만 뽑아 다시 정리한 것으로 그 체제는 서(叙)·권상(卷上)·권하(卷下)로 구성되었다. 내용은 참선의 5가지 종류(外道禪·凡夫禪·小乘禪·大乘禪·最上乘禪)의 분류와 저술 목적, 선종과 교종을 비교하고 화합의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목판은 1면에 좌우로 2장씩 1판 4장, 또는 1판 양면 2장(권하 제25·26장)의 내용이 판각되어 좌우로 긴 장방형의 형태이며 현재 완전한 구성을 갖춘 80장 22판(중복·보각경판 3판 포함)이 남아 있다. 마구리는 따로 제작·결구하여 장부를 노출하지 않고 나무못으로 고정해 두었다.

시주질(施主秩)에는 판각에 참여한 선수(善修, 1543~1615)를 비롯해 약 115명 내외의 승려 이름이 확인되며, 연판(鍊板)은 양기(良機)가 담당하고 판각에는 응준(應俊), 혜관(惠寬) 등 8명이 각수가 참여한 것으로 보아 규모가 큰 대단위 불사(佛事)였음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선원제전집도서 목판’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선원제전집도서 목판> 현황

판각시기	판각처	전존판본	전존목판	비고
*선조 36(1603)	지리산 능인암	○	○	하동 쌍계사 / 22판(완질)
선조 39(1606)	계룡산 율사	○	-	-
선조 41(1608)	조계산 송광사	○	○	순천 송광사 / 24판(결)
⋮	⋮	⋮	⋮	⋮
숙종 27(1701)	회양산 봉암사	○	-	-
[18세기]	의왕 청계사	-	○	청계사 / 36판(결)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35호

(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쌍계사 소장 ‘선원제전집도서 목판’은 시기적으로 병자호란(1636) 이전에 판각된 목판으로, 전존하는 동종 목판으로서 가장 일찍 판각된 것이다. 이는 조성 불사 당시 능인암의 출판인쇄역량과 경판 조성을 비롯하여 인적 구성, 불교사상적 동향, 능인암과 쌍계사의 관계 등과 같은 역사·문화적인 실체와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원천자료이기도 하다.

하동 쌍계사 소장 ‘선원제전집도서 목판’은 전라도 고산 화암사(1493)나 충청도 속리산 관음사(1579) 등의 10행 20자의 판본과 달리 9행 19자로 판각되었다는 점에서 동일한 행자수(行字數)의 경상도 지리산 신흥사(1579) 판본을 번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이 판본은 전라도 순천 송광사(1608)에서 번각할 때 저본이 되었다.

하동 쌍계사 소장 ‘선원제전집도서 목판’은 희귀성, 판각의 시기 및 동종문화재의 잔존 현황 등으로 볼 때, 역사적·학술적·인쇄사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가치가 충분하다.

□ 원돈성불론·간화결의론 합각 목판(圓頓成佛論·看話決疑論 合刻 木板)

- 현재 지정현황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85호(1979.12.29.)
- 명 칭 : 원돈성불론·간화결의론 합각 목판(圓頓成佛論·看話決疑論 合刻 木板)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쌍계사
- 소재지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길 59, 쌍계사
- 수 량 : 11판(完)
- 규 격 : 광곽 16.5×25.2cm
- 재 질 : 나무
- 조성연대 : 1604년(선조 37)

○ 제 작 자 : [校正] 覺性 / [刻手] 寶安, 道梅, 眞淨, 一浩, 淳玉, 印花

○ 사 유

하동 쌍계사 소장 ‘원돈성불론·간화결의론 합각 목판’은 고려 승려 지눌(知訥, 1158~1210)이 지은 『원돈성불론(圓頓成佛論)』과 『간화결의론(看話決疑論)』을 1604년(선조 37) 가을 지리산 능인암(能仁庵)에서 판각되어 쌍계사로 이전된 불교 목판으로 11판의 완질본이다. 상권의 『원돈성불론』은 5가지 질문에 대하여 지눌이 답하는 문답형식으로 기술한 것이고, 여기서 그는 당나라 이통현(李通玄, 635~730)이 저술한 『화엄신론(華嚴新論)』의 사상을 토대로 교종의 용어와 개념 및 가르침을 선종(禪宗)과 결부시켜 설명하였다. 하권의 『간화결의론』은 지눌이 선문 수행의 방편으로 임제종(臨濟宗)의 산화선법(看話禪法)을 강조한 문답형식으로 구성되었다.

목판은 1면에 2장 혹은 양면 4장을 판각하여 1판에 2~4장이 새겨진 형태로, 총 36장 완질판이다. 마구리는 따로 제작하여 측면에서 장부가 보이지 않게 결구한 형태이며, 마구리 측면에는 제명(題名)의 약칭과 장차(張次)를 음각해 놓았다. 현재 결손된 마구리를 모두 보수하였으며 판면과 마구리의 작은 균열 이외에 특별한 훼손 부분이 거의 없어 보존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시주질(施主秩)에는 20여명에 이르는 승려들의 법명(法名)이 판각되어 있는데, 선수(善修, 1543~1615)가 대선사(大禪師)로 되어 있고 그의 법제자인 각성(覺性, 1575~1660)이 교정을 담당한 사실이 확인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동종 목판의 현황을 제시하면 (표)와 같다.

(표) <원돈성불론·간화결의론 합각 목판>의 현황

판각시기	판각처	전존판본	전존목판	비고
선조 11(1578)	묘향산 반야암	○	-	-
선조 12(1579)	속리산 대암	○	-	-
<b>*선조 37(1604)</b>	<b>지리산 능인암</b>	<b>○</b>	<b>○</b>	<b>하동 쌍계사 / 11판 (완)</b>
선조 41(1608)	순천 송광사	-	-	『간화결의론』 10판(완)
광해 09(1617)	황해도 송화수회	○	-	-
인조 04(1626)	지제산 천관사	○	-	-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쌍계사 소장 ‘원돈성불론·간화결의론 합각 목판’은 시기적으로 병자호란(1636) 이전에 판각되어 유일하게 전래되고 있는 목판이다. 이 목판은 희귀성이 높으며 판각 시기나 전래 현황 등으로 볼 때,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 □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목판(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木板)

- 현재 지정현황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85호(1979.12.29.)
- 명 칭 :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목판(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木板)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쌍계사
- 소재지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길 59, 쌍계사
- 수 량 : 335판(完)
- 규 격 : 광곽 24.8×41.2cm
- 재 질 : 나무
- 조성연대 : 1611년(광해 3)
- 제작자 : [鍊板] 智正, 尙信 / [刻手] 應俊, 勝熙, 姜繼祥 외 50인
- 사유

『대방광불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은 부처와 12보살이 주고받는 문답형식을 통해 대승불교의 사상과 체계적인 수행의 절차를 설명한 경전으로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널리 읽힌 불교경전이다. 하동 쌍계사 소장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목판’은 1455년(세조 1)에 주조한 금속활자인 을해자(乙亥字)로 간행한 판본을 저본으로 해 1611년(광해군 3) 여름에 경상도 지리산 능인암(能仁庵)에서 번각(飜刻)되어 쌍계사로 이전된 불교목판으로, 현재 335판의 완질이 전래되고 있다. 조선후기 사찰에서는 을해자 판본 번각본이 널리 유통되었는데 경기도 연천 수청산(水淸山) 용복사(龍腹寺) 판본(1634), 전라도 승주 조계산(曹溪山) 선암사(仙巖寺) 판본(1655), 경상도 밀양 재약산(載藥山) 영정사(靈井寺) 판본(1661), 평안도 영본 묘향산(妙香山) 보현사(普賢寺) 판본(1681) 등이 전해지고 있다.

마구리는 따로 제작해 측면에서 장부가 보이지 않도록 결구하였다. 마구리는 상·하 2곳에 나무못을 박아 고정하고 측면에는 ‘원서십이장(圓序一二丈)’과 같이 찾아보기 쉽도록 권차(卷次)와 장차(張次)가 음각되어 있다. 그리고 결손된 마구리는 근래에 보수하여 권차와 장차는 먹으로 표기되어 있다.

권5의 말미인 제118장에는 당시 지리산과 조계산 일대에서 큰 세력을 형성한 대선사(大禪師) 선수(善修, 1543~1615)를 비롯한 태능(太能, 1562~1649), 각성(覺性, 1575~1660) 등 여러 승려의 이름이 확인되며, 판각질(板刻秩)에는 판각에 참여한 응준(應俊, 1587~1672), 승희(勝熙) 등 승려와 김득림(金得林), 조응도(趙應道) 등의 재가자를 포함한 53명의 각수명이 양각되어 있다. 이 목판은 1611년(광해군 3)에 처음 판각된 이후 훼손된 목판에 대하여 후대 보각경판이 제작되었고 근래에는 마구리까지 보수되어 보관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현존하는 동종목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목판> 현황

판각시기	판각처	전존판본	전존목판	備考
선조 03(1570)	무등산 안심사	○	-	-
선조 08(1575)	고산 안심사	○	-	-
선조 22(1588)	청도 운문사	○	○	청도 운문사 / 104판(완) 『원각경약소』의 저본
<b>*광해 03(1611)</b>	<b>지리산 능인암</b>	○	○	<b>하동 쌍계사 / 335판 / 을해자본 번각</b>
인조 12(1634)	경기 용복사	○	-	-
효종 06(1655)	조계산 선암사	○	○	순천 선암사 / 343판/ 을해자본 번각
현종 02(1661)	밀양 영정사	○	-	-
숙종 07(1681)	영변 보현사	○	-	-
숙종 07(1681)	금강산 건봉사	○	-	-
숙종 08(1882)	감로사	○	○	서울 흥천사 / 60판

위의 표의 내용에 따르면, 쌍계사 소장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木板>은 시기적으로 병자호란(1636) 이전에 판각된 경판으로서는 희귀성이 높은 중요한 불교 전적 목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성불사 당시 능인암의 출판 인쇄역량 및 조직체계를 비롯해 인적 연계망, 불교사상적 경향, 능인암과 쌍계사의 관계 등 역사·문화적인 실체와 시대상을 조명할 수 있는 기록유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쌍계사 소장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木板>은 희귀성이 높은 경판으로 그 판각의 시기나 목판의 전존 현황 등으로 볼 때,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 효의왕후 어필 및 함-만석군전·곽자의전

### (孝懿王后 御筆 및 函-萬石君傳·郭子儀傳)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효의왕후 어필 및 함-만석군전·곽자의전  
(孝懿王后 御筆 및 函-萬石君傳·郭子儀傳)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한글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국립한글박물관
- 수 량 : 서책 1책, 함 1점
- 규 격 : 서책 전체: 23.0×16.5cm, 함 전체: 25.6×18.9×3.9cm
- 재 질 : 종이에 먹, 오동나무
- 형 식 : 첩, 직육면형 함
- 조성연대 : 1794년(정조 18)

○ 제 작 자 : 효의왕후 김씨(1753~1821)

○ 사 유

‘효의왕후 어필 및 함-만석군전·곽자의전’은 정조(正祖) 비 효의왕후 김씨(孝懿王后 金氏, 1753~1821)가 조카 김종선에게 『한서(漢書)』에 수록된 「만석군석분(萬石君石奮)」과 『신당서(新唐書)』 수록 「곽자의열전(郭子儀列傳)」을 한글로 번역하게 한 다음, 효의왕후가 1794년(정조 18) 직접 필사한 책이다. 이 책에 수록된 효의왕후 사촌오빠 김기후의 발문은 책의 제작 과정에 관한 것으로, 여기에 의하면 1793년 효의왕후가 역대 사기(史記)를 친히 옮겨 적었고, 1794년 종질 김종선에게 「만석군석분」과 「곽자의열전」을 한글로 번역시킨 것을 손수 베껴 완성했다고 한다. 효의왕후는 이 두 자료를 서사한 이유에 대해 “충성스럽고 질박하며 도타움[忠樸質厚]은 만석군을 배우고, 근신하고 물러나며 사양함[謹慎退讓]은 곽분양(즉 곽자의郭子儀로 汾陽郡王에 봉해짐)과 같으니, 쇠락한 우리 가문에 대대손손의 귀감(龜鑑)으로 삼고자 한 것”이라고 발문에서 밝혔다. 결국 이 어필책은 가문의 평안과 융성함을 기원한 효의왕후와 친정 식구들의 염원이 담긴 자료라 하겠다.

여단이 뚜껑의 나무책갑에 보관되었고 ‘곤전어필(坤殿御筆)’이라고 해서로 써 있는 제침(題籤), 만석군전과 곽자의전을 필사한 본문, 효의왕후 한글 발문, 김기후의 한글과 한문 발문 순으로 구성되었다.

18세기 왕실의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본이자 한글흘림체의 범본이라고 보아도 좋을 만큼 정제되고 수준 높은 서풍을 구사하였다. 특히, 왕후의 신분으로 소설을 필사하고 발문을 남긴 사례가 극히 드물어 희소적 가치가 크고 당시 언문(諺文)의 특성과 서체를 통해 국문학적, 서예사적,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제작 시기와 경위, 서사자(書寫者)가 분명해 조선시대 한글서예사의 기준작으로 삼으로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전가보장(傳家寶藏, 가문에서 소중하게 간직함)’, ‘자손기영보장(子孫其永寶藏, 자손들은 영원히 소중하게 간직함)’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오동나무 함은 조선후기 서책함의 특징이 잘 살아있고 어필 제작 시기와 동시대로 판단되므로, 함께 보물로 지정해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다.

## □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 및 함(固城 玉泉寺 靈山會 掛佛圖 및 函)

○ 현재 지정현황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99호(1994.7.4.)

○ 명 칭 :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 및 함(固城 玉泉寺 靈山會 掛佛圖 및 函)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옥천사

○ 소재지 :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 연화산1로 471-9, 옥천사



- 수 량 : 괘불도 1폭, 괘불함 1점
- 규 격 : 괘불도 : 전체 1,006.0×737.0cm(화면 945.6×705.5cm)  
괘불함 : 길이 821.4×33.0×34.6cm
- 재 질 : 비단에 채색(괘불), 나무(괘불함)
- 형 식 : 축(軸)
- 조성연대 : 1808년(순조 8)
- 제 작 자 : 評三, 錫奎, 唯性, 度日, 察旻, 璽安, 再澄, 弘泰, 教桓, 千佑, 趙鑒,  
敬朋, 彭憲, 仙己, 仙敏, 演日, 慕訓, 志洪

○ 사 유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 및 함’은 1808년(순조 8) 수화승 평삼(評三)을 비롯하여 18명의 화승들이 제작한 것으로, 20폭의 화폭을 붙여 만든 높이 10m 이상 크기의 대형불화이다. 도상은 석가여래 삼존과 아난존자와 가섭존자, 6존의 부처를 배치한 간결한 구성이다. 화기에 ‘대영산회大靈山會’라는 화제가 있어 영산회 도상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수화승 평삼은 40여 년간 활동에 비해 남아 있는 작품이 약 11점으로 많지 않지만, 이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는 그가 본격적으로 수화승이 되어 17명이의 대단위 화승을 거느리고 제작한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다.

가는 신체와 둥근 얼굴에 가늘게 묘사된 이목구비, 어린아이에 가까운 얼굴, 화려한 문양과 고분법(高粉法)을 사용한 기법, 적색과 녹색이 주조를 이루며 청색과 흰색 등이 조화롭게 사용된 색채 등은 1769년 남해 용문사 괘불도, 1783년 화순 만연사 괘불도 등 18세기 후반의 괘불도 양식과 연관성을 보여준다. 다만,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는 삼존(三尊)을 거의 비슷한 규모로 그린 두 괘불도와 달리 협시보살의 크기를 작게 하고 상단에 부처를 배치하는 등 나름대로의 변화 있는 구도를 시도한 평삼의 화풍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반적으로 18세기 전통 화풍을 계승하고 있는 가운데, 색감이나, 비례, 인물의 표현, 선묘 등은 19세기 전반기 화풍을 반영하고 있어 과도기적 양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괘불도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괘불함 역시 옷칠로 마감하고 다양한 모양의 장식과 철물로 장식한 아름다운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어 기법적 측면에서도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 또한 내부에 묵서로 제작연도와 제작자에 대한 기록도 있어 한국공예사 연구를 위한 자료로서도 주목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는 19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대형 불화로서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괘불함과 함께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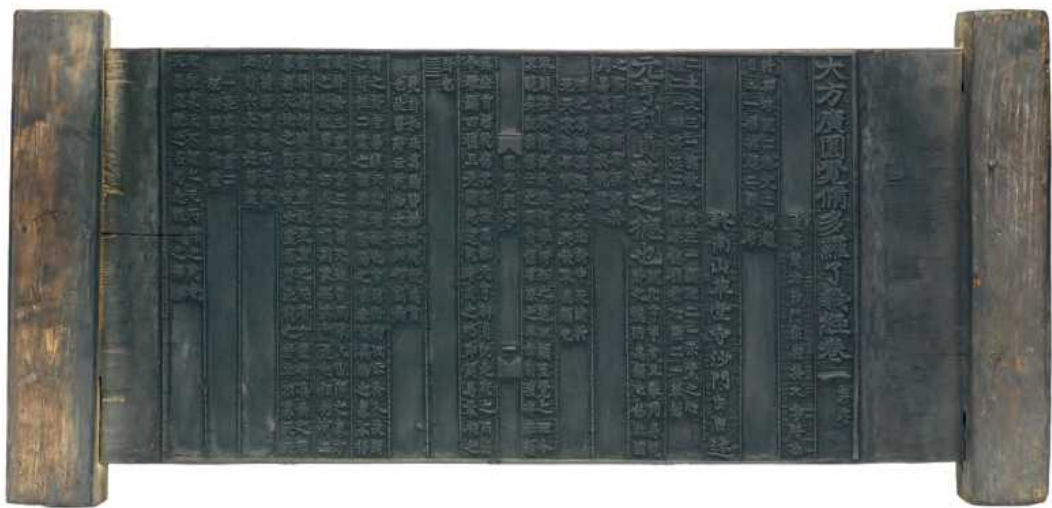
【지정예고 사진】



<선원제전집도서 목판>



<원돈성불론·간화결의론 합각 목판>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목판>



<효의왕후 어필 - 만석군전 · 괘자의전>



<효의왕후 어필 함>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 괘불함>